

반도체

비중확대 (유지)

이 승 우

02 6915 5771
swleesw@ibks.com

R.A 이 양 중

02 6915 5666
yj.lee@ibks.com

PC산업 - 2분기 PC 출하량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

- 2013년 2분기 글로벌 PC 출하량 7,600만대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 부진 지속
- 미국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으나, 중국과 유럽의 수요 침체가 부진의 원인
- 업체별로는 중국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레노보가 HP를 0.4%p 차로 제치고 점유율 1위에 등극
-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윈도우 8.1 및 하스웰 효과 등으로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 전망
- PC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어, 이 같은 결과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What's New:

가트너 발표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글로벌 PC 출하량은 7,600만대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2.4%, 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은 다섯 분기 연속으로 이어졌다. 분기 7,600만대라는 수치는 2009년 2분기 6,785만대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Analysis:

PC 출하량 부진은 지역을 불문하고 세계 전역에 걸쳐서 나타났다.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PC 수요는 2,127만대로 전년대비 16.8% 줄었으며, AP(아시아/퍼시픽) 지역 수요도 전년대비 11.5% 감소한 2,618만대에 그쳤다.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미국 수요는 1,497만대로 전년대비 1.4% 감소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업체들 중에서는 레노보가 점유율 1위(16.7%)에 등극했다. 중국 PC 시장 부진으로 레노보의 출하량도 전년동기대비 감소했지만, 타 지역에서의 점유율 증가로 다른 탑5 업체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HP는 레노보에 0.4%p 뒤진 16.3%의 점유율을 기록해 2위로 내려 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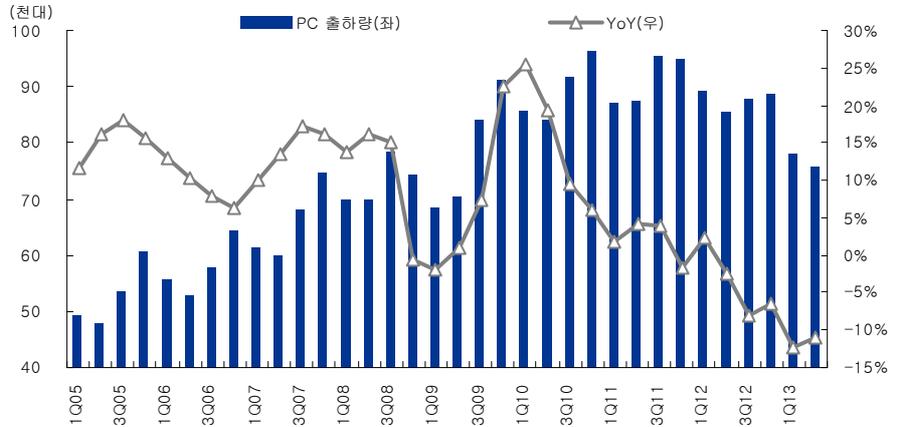
So What:

윈도우 8.1과 하스웰 아키텍처 제품이 하반기 PC 수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PC 수요는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가트너, IDC 등 주요 시장조사기관들의 PC 수요 전망치(대부분 한자리수 감소)는 추가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PC에 대한 기대치를 연간 -10% 이상으로 낮게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가트너의 PC 관련 통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IBK의 반도체 산업 모델에서는 올해 PC 수요 증가율을 -11%로 가정하고 있다. PC 보다는 중국의 태블릿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PC의 구조적인 수요 감소세가 뚜렷하다...

그림 1. 글로벌 PC 출하량



자료: 가트너

지역별 분석

그림 1. 지역별 PC 출하량

(단위: 천대)	2Q13	2Q12	1Q13	YoY	QoQ	M/S
아시아/퍼시픽	26,814	30,302	27,821	-11.5%	-3.6%	35.3%
유럽/중동/아프리카	21,275	25,567	22,827	-16.8%	-6.8%	28.0%
미국	14,975	15,186	13,796	-1.4%	8.5%	19.7%
라틴아메리카	8,130	9,037	7,921	-10.0%	2.6%	10.7%
일본	3,555	3,859	4,161	-7.9%	-14.5%	4.7%
캐나다	1,251	1,373	1,349	-8.8%	-7.2%	1.6%
합계	76,001	85,325	77,874	-10.9%	-2.4%	100.0%

자료: 가트너, IBK투자증권

▶아시아/퍼시픽 (2,681만대): 2분기 아시아/퍼시픽 PC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11.5%, 전분기대비 3.6% 하락했다. 대체적으로 전지역에 걸쳐 약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중국은 지방도시에서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신규 수요 창출 정책의 부재로 인해 하락세를 이끌었다. 반면, 인도는 정부 부처의 PC 교체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중동/아프리카 (2,127만대): 1분기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16% 하락한 데 이어, 이번 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6.8% 하락해, 좀처럼 PC수요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써, 5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 부진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미국(1,497만대): 미국은 전년동기대비 1.4% 하락하며 가장 선방했다. 지난 일곱 분기 대비해 전년동기 대비 감소 추세가 완화되었다는 점과 지난 분기대비 8.5 성장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모바일 PC는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데스크탑 PC가 지난해 대비 Flat했고, 전분기대비 10% 성장했다.

▶ 라틴아메리카(813만대): 라틴아메리카의 PC 출하량은 813만대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0% 하락했으나 전분기대비해서는 2.6% 소폭 증가했다.

▶ 일본(355만대): 일본은 전년동기대비 7.9%, 지난분기대비 14.5% 급락했다.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PC 교체 시기의 소비자들이 PC가 아닌 태블릿으로 교체하는 현상으로 인한 수요 부진이 주원인으로 추측된다.

업체별 분석

그림 2. 업체별 PC 출하량

(단위: 천대)	2Q13	2Q12	1Q13	YoY	QoQ	M/S
레노보	12,677	12,755	11,641	-0.6%	8.9%	16.7%
HP	12,403	13,029	11,771	-4.8%	5.4%	16.3%
델	8,985	9,349	8,755	-3.9%	2.6%	11.8%
에이서	6,305	9,744	6,534	-35.3%	-3.5%	8.3%
아수스	4,590	5,772	5,064	-20.5%	-9.4%	6.0%
기타	31,041	34,676	34,109	-10.5%	-9.0%	40.8%
합계	76,001	85,325	77,874	-10.9%	-2.4%	100.0%

자료: 가트너, IBK투자증권

▶ 레노보: 레노보가 시장점유율 0.4%p 차이로 HP를 제치고 글로벌 PC 출하량 1위 업체에 올라섰다. 아시아/퍼시픽 지역 출하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미국과 유럽/중동/아프리카에서 강세를 기록했다. 레노보의 아시아 물량의 대부분은 중국이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진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 HP: HP의 2분기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했다.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고전했으나, 북미, 아시아/퍼시픽 그리고 일본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HP는 한 분기에 출하량이 감소하면, 다음 분기는 회복되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플라이체인 이슈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 델: 델의 2분기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3.9% 하락했지만, 최근에 몇 분기 연속 보였던 추세대비 하락 폭이 많이 완화되었다. 이는 이익보다 출하량 확대에 초점을 둔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델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6월분기 6.5%에서 올해 6월분기 2.5%로 감소했다.

▶ 에이서 및 아수스: 에이서와 아수스의 출하량은 각각 지난해대비 35.3%, 20.5% 하락하며 매우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출하량 감소는 미니노트북이 시장에서 퇴출되었기 때문이다. 이 업체들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